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적요구

오 천 일

오늘 우리 당은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완강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적요구는 한마디로 말하여 천만군민을 백두의 칼바람맛을 아는 투철한 혁명신념의 소유자, 진짜배기선군혁명투사로 키우며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완강하게 벌려나감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적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전체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칼바람맛을 아는 투철한 혁명신념의 소유자로, 진짜배기선군혁명투사로 준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신념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닌 사람만이 간고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수 있다.

군대와 인민이 죽어도 변치 않을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도록 하는것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의 요구이다.

오늘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기본력량은 착취와 압박도 모르고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혁명의 4세, 5세들이다.

새 세대들이 혁명의 1세대들처럼 확고한 혁명신념을 지닌다면 혁명이 전진하고 승리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중도반단되게 되며 나중에는 선렬들이 피흘려 쟁취한 귀중한 전취물마저 원썬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것은 전 세대가 피흘려 쟁취하고 땀흘려 건설한 사회주의를 그 후손들이 자기의 손으로 무너뜨린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의 교훈이 잘 보여준다.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은 새 세대들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확고히 간직할 때 우리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군대와 인민이 죽어도 변치 않을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는것은 혁명의 4세, 5세들을 겨냥한 원썬들의 반혁명적사상공세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사정파도 관련된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동적사상공세는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4세, 5세들에게 집중되고있으며 보다 공공연한 방법으로 더욱더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지금까지 합법적무역공간과 사사려행자들을 통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들이키는 교활한 방법에 매달리던 적들이 이제는 반동적사상공세의 침략적목적을 로골적으로 드러

내놓고 그 수단과 방법까지 공개하면서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더우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더러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의 면전에서 반 공화국배라를 살포하도록 부추기는것도 모자라 본토에서 《인권재단》의 탈을 쓴 모략단체 까지 끌어들이고있으며 싸이버전으로 우리를 《붕괴》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새 세대들의 혁명신념을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오늘의 정세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적들의 그 어떤 회유나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더욱 억세게 간직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확고히 지니도록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체험하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신념을 자기의 녀트로 간직하게 하는것이다.

백두의 칼바람, 백두의 눈보라를 떠난 조선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그 눈보라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이 형성되었다.

폭풍치는 백두의 칼바람은 누구에게나 사느냐 죽느냐, 오늘이나 래일이나, 절개나 배신이나 하는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반드시 대답하게 한다.

맏판 눈보라에 얼어도 보고 살을 에이는듯 한 아픔을 느끼며 백두산에 오르느라만 누구나 백두의 녀트로, 백두의 기상으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엄한 영상을 심장에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고 만난을 헤치며 끝까지 싸워 승리한 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를 뼈에 사무치게 새기게 된다. 이와 함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기어이 완성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

천만군민이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투사들이 얼어터진 손으로 한자한자 새겼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뼈속에 정대로 쏘아박을 때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더욱 억세게 간직할수 있다.

백두의 칼바람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거나 백두의 칼바람이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것은 곧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신념을 자기의 녀트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것이며 혁명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의지가 부족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변절자, 배신자들은 레외없이 백두의 칼바람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피해다녔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악랄하게 거부해나섰던 지난 세기 50년대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60년대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그랬다. 이자들은 끝내 배신과 변절의 길을 걷지 않을수 없었으며 백두의 칼바람의 철추,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었던것이다.

백두의 칼바람은 단순히 자연의 눈보라가 아니라 조선의 기상을 알게 하고 혁명과 인간을 알게 하며 자기자신을 알게 하는 선군조선의 혁명바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가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한다고,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버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사상에는 바로 우리 군

대와 인민을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더욱 억세게 버리고 최후 승리의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걸어가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진짜배기선군혁명투사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적요구는 다음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완강히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승리만을 안아온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공격전의 전통을 계승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완강하게 벌려나가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 7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반미대결전을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에서 미제의 최후멸망사로 기록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하며 최단기간내에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 땅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이 꽃피나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사회주의경제강국, 사회주의 문명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남이 간 길을 따라 남이 하는 방식으로, 남이 걷는 속도로가 아니라 우리 식으로 시간을 주름잡고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하고 혁신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전진속도가 높아지고 선군조선의 위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전진속도를 지연시키려는 원쑤들의 발광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선군조선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적들의 히스테리적인 발광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총공격전의 발걸음을 조금도 지체하거나 늦추어서는 안되며 더 높은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원쑤들의 최후멸망의 날을 앞당겨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의 총공격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그것을 힘있게 추동하는 공격정신은 다름아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는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목표와 투쟁방향, 투쟁방도뿐만아니라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하여야 할 투쟁기풍과 투쟁기질, 투쟁본때까지도 다 담겨져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높이 부른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천만군민에게 혁명이자 일심단결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고 항일의 7련대의 나팔소리는 혁명군대의 군가로 힘차게 울리면서 군대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시키며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게 한다.

항일의 친구들에서 오늘도 들려오는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라는 선렬들의 피끓는 웨침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수령의 유훈과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열렬한 조국애, 투철한 주적관과 견결하고 무자비한 반제제급의식을 똑똑히 새겨주며 천만군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은 전진을 방해하는 패배주의, 요령주의, 본위주의와 수입병에 사상적타격을 주고 새것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사고방식과 일본새에 경종을 울려준다. 뿐만아니라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고 작전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투쟁기풍,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혁신

적안목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창조하고 비약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준다.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 때 그 어떤 대적이 덤벼들어도 서슴없이 최후결사전에 뛰어들수 있으며 비상한 속도와 위력으로 만난시련을 헤치면서 제국주의아성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더욱 완강하게 돌진해나갈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사상에는 이처럼 백두의 녀과 기상, 담력과 배짱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비약의 폭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더욱 부강번영할 선군조선의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민족의 녀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위력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있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것이다.